

# 제34차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전 기 현 회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다.

지난 일 년간 우리양봉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모든 양봉농가에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34차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지난 한해는 돌이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해였습니다.

중국 수입 소비 문제, 화분 검역물 지정, 항생제 파동, FTA 협상 등과 같은 많은 현안들이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었고, 이러한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주신 회원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슬기롭게 이겨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협회는 지난해 침체된 벌꿀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벌꿀의 버스광고 홍보와 TV방송, 서울 시가에서 홍보 캠페인 등 소비촉진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결과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협회에서는 소비촉진을 위해 임의자조금 등을 추진하여 벌꿀홍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지난 한해 가장 잊지 못할 항생제 파동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큰 피해를 주는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항생제 파동으로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하여 제2의 항생제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마음자세와 실천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안전한 벌꿀과 다양한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비로소 소비자들은 우리의 벌꿀을 믿고 찾는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양봉농가들은 소비자에 안전한 벌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약제사용을 자제하고, 협회에서는 양봉농가 여러분들에 약제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천연약품을 개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된바 있는 항생제의 식약청의 검사규격을 마련하는데 있어 협회와의 상반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결코 생산농가를 외면하는 정책, 양봉인들 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은 펴 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생산농가가 피해가 있다면 언제든지 단호하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협회는 말 그대로 양봉농가권익을 대변하는 여러분의 단체이고, 양봉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협회를 믿고 저 전기현을 믿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항생제 파동보다 더 큰 문제가 한·미FTA협상입니다.

그 외 한·아세안 10개국 FTA협상과 한·캐나다, 한·EU 27개국 FTA협상, 한·인도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인 중국과도 FTA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국가 간 공동 연구 중에 있으며 곧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WTO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DDA협상이 다시 재개되어 금년부터 진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험난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많은 변화를 추구해야만 세계시장과 대응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업양봉업을 위한 등록제, 방역 예찰제, 폐업보상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양봉인 여러분들도 현재의 생산시스템에서 벗어나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규모화·기업화 양봉업이 되어야 하고, 제품 브랜드화, 마케팅까지 유기적인 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FTA협상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미 FTA협상입니다. 6차 협상결과 미국측은 5년내 우리의 벌꿀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협회와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변화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점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바꿀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관행에만 너무 젖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힘들겠지만, 또 힘든 시기가 있어야 빛을 볼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내십시오.

힘들었던 지난 한 해였던 만큼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풍성한 수확으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